

## 참고 3.

### 인터넷전문은행 자금 조달 및 운용 여건 점검<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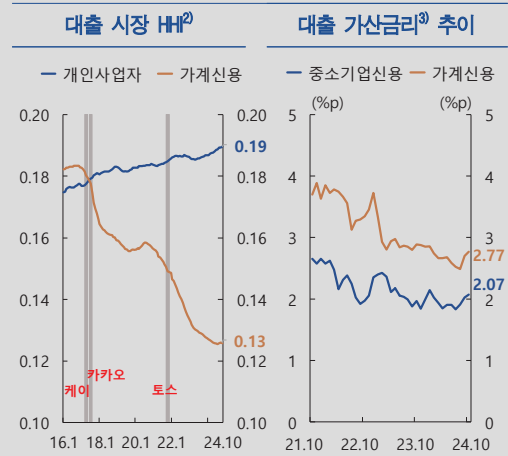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산업 경쟁 촉진,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15년 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출범하였다. 2024년 3/4 분기말 현재 영업중인 인터넷전문은행(3개사)은 총 자산(116.8조원) 기준으로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제외)<sup>2)</sup>의 5.3%, 지방은행의 61.4%까지 성장하였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맞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목표 충족<sup>3)</sup> 등 자금의 조달·운용에 있어 위험관리가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성과를 살펴보고 자금 조달 및 운용 여건을 점검하고자 한다.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 이후 가계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정도를 허핀달-허쉬만 지수<sup>4)</sup>(HHI: Herfindahl-Hirschman Index)를 통해 살펴보았다. 가계 신용대출에서는 동 지수가 2024년 10월말 0.13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전인 2016년 12월말(0.18)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일반은행 간 대출 경쟁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

된다.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동 지수가 같은 기간 소폭 상승(0.18 → 0.19)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시장에서는 경쟁 촉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출 가산금리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지만, 3사 체제가 시작된 이후 가계 신용대출의 가산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0.93%포인트 하락(21년 10월 3.70% → 24년 10월 2.77%)한 반면,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가산금리는 0.59%포인트 하락(2.65% → 2.07%)하는 데 그쳤다. 이는 가계 신용대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으로 기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하한 효과가 중소기업 신용대출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음을 시사한다(참고 3-1).

참고 3-1.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성과<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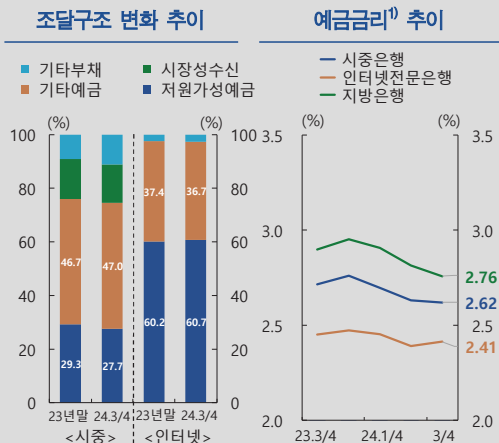
주: 1) 음영은 개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기  
 2)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일반은행 기준  
 3) 일반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한도대출 제외  
 자료: 한국은행 시사,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1) 본고는 김휘인·엄태균(은행분석팀), 김종원(인터넷전문은행팀)이 작성, 신준영(금융기관분석부장)·송길성(은행분석팀장)·오석은(인터넷전문은행팀장)이 검토하였다.
- 2) 인터넷전문은행도 시중은행으로 분류되나, 본고에서는 비교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여타 시중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지칭하였으며, 2024년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아이엠펙크(舊 대구은행)도 과거 통계를 포함하여 시중은행으로 분류하였다.
- 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5월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3년말까지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12월에는 동 목표를 2024-26년중 평잔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을 동 비중 산정에 포함한다고 발표하였다.
- 4)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는 시장 내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값으로 산정되며 독과점시장을 판단하는 보조지표로 활용된다. HHI가 높아지면(낮아지면) 경쟁도가 낮아진(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 HHI가 0.1 미만이면 경쟁도가 높은 시장, 0.1에서 0.18 사이이면 경쟁도가 중간인 시장, 0.18 이상이면 경쟁도가 낮은 시장으로 구분되나 적용기준은 각 나라의 금융제도 및 산업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자금 조달 및 운용 현황

모바일 앱 기반으로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자금의 상당 부분을 예수금에 의존<sup>5)</sup>하며, 특히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예금의 비중이 높다.<sup>6)</sup> 이를 반영하여 2024년 3/4분기 인터넷전문은행의 평균 예금금리(잔액 기준)는 2.41%로 시중은행(2.62%)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저원가성예금의 높은 비중은 자금을 저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업권내 조달 경쟁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빈번한 자금 인출<sup>7)</sup> 등이 발생하여 수신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참고 3-2).

### 참고 3-2.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 조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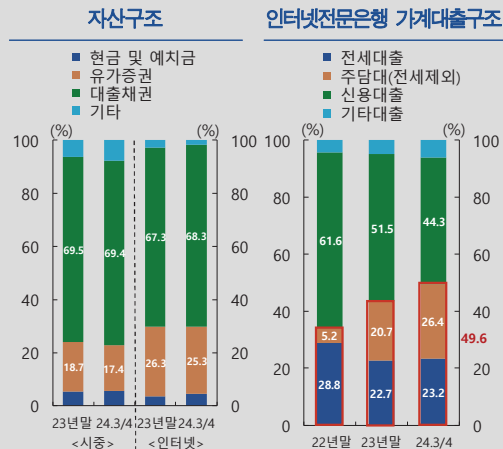


주: 1)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등 전체 원화예금(당좌예금, 국고예금, 별단예금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자산 비중(전체 자산 대비)은 2024년 3/4분기말 68.3%로 시중은행(69.4%)과 비슷하나, 유가증권 비중(25.3%)은 시중은행(17.4%)에 비해

높은 편이다. 차주별로는, 전체 대출자산의 대부분이 가계대출(94.2%)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대출<sup>8)</sup>(5.8%)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sup>9)</sup> 포함)의 비중(49.6%)이 신용대출(44.3%)보다 높는데, 이는 2023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 대상이 기존 아파트에서 아파트 외 주택까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참고 3-3).

### 참고 3-3.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 운용 현황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부문별 대응여력

### 유동성위험

인터넷전문은행은 자금의 대부분을 요구불예금 등 수시입출금식 예금으로 조달하여 비교적 만기가 긴 대출로 운용하기 때문에, 은행채 등을 통해 조달 만기를 다양화할 수 있는 여타 시중은행에 비해 부채(조달)-자산(운용) 간 만기<sup>10)</sup>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3/4분기말

5) 2024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 총부채 중 예수금 비중은 97.4%로 시중은행(74.7%)보다 22.7%포인트 높다.

6) 요구불예금, 저축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의 합계로 시산하였으며, 전체 원화예금 중 저원가성예금 비중이 2024년 9월말 62.7%로 시중은행(40.7%)보다 1.5배 높다.

7) 예를 들어, 2023-24년 3/4분기중 저원가성예금의 변동성(전월대비 증가율)의 표준편차, 일반은행 기준)은 3.1%로 저축성예금(0.8%)에 비해 3.8배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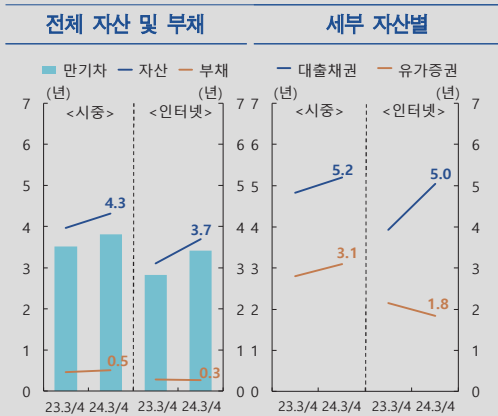
8)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인에 대한 신용공여도 가능하지만, 현재 해당 신용공여를 취급하고 있지 않다.

9) 2024년 3/4분기말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 전체(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전세대출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10) 자산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으로 자산의 실효 만기를 의미하며, 부채는 원리금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을 의미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산-부채 간 만기 불일치 정도 (자산 평균만기 - 부채 평균만기)는 3.4년으로 시중은행(3.8년)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만기 불일치 정도가 2023년 3/4분기말 2.8년에서 1년 만에 0.6년 늘어나는 등 시중은행(3.5년 → 3.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채의 평균만기(24년 3/4분기말)가 0.3년으로 시중은행(0.5년)에 비해 짧은 반면, 최근 대출자산의 평균만기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확대 등으로 길어지게 되어 기인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산 평균만기 변화를 세부 자산별로 살펴보면, 대출채권의 평균만기는 2024년 3/4분기말 5.0년으로 2023년 3/4분기말(3.9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반면, 유가증권의 평균만기는 축소(2.1년 → 1.8년)되었다(참고 3-4).

참고 3-4.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산 및 부채 평균만기<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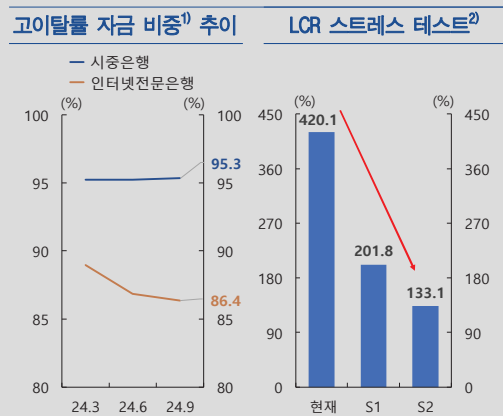


주: 1) 원화 자산 및 부채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산-부채 간 만기 불일치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유사시 활용가능한 가용자산, 예상 유출자금에 대한 대응능력 등을 감안하면 유동성위

험의 현재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유가증권에서 국채 등 고유동성자산이 차지하는 비중<sup>11)</sup>이 높은 데다, 전체 현금유출액 중 금융상황 급변 시 인출 가능성이 높은 고이탈률(10% 이상) 자금<sup>12)</sup> 비중도 2024년 9월 기준 인터넷전문은행이 86.4%로 시중은행(95.3%)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현금유출액이 늘어나는 충격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규제수준(10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당일의 인출률(약 25%)과 비슷한 수신 이탈률(26.7%)을 적용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S2)에서 LCR 하락폭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참고 3-5).

참고 3-5.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동성 현황



주: 1) 전체 현금유출액 중 10% 이상의 이탈률이 적용되는 현금유출액 비중을 의미  
 2) 고유동성자산 및 현금유입액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현금유출액 산정시 예수금 등에 적용되는 평균 이탈률은 2024년 9월 11.9%에서 S1은 19.3%, S2는 26.7%를 적용  
 자료: 한국은행 시산,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대출자산 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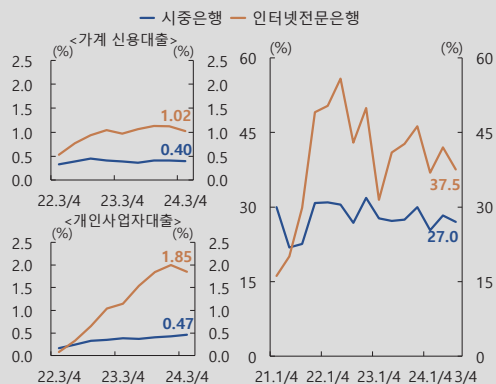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자산 연체율은 2024년 3/4분

11) 전체 현금(한국은행 예치금 포함) 및 유가증권 대비 국채 등 고유동성자산(할인을 적용 후 기준) 비중(평균잔액 기준)은 인터넷전문은행이 2024년 9월 98.4%, 시중은행이 69.1% 수준이다.  
 12)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총현금유출액(분모요소) 산정시 자금조달 성격에 따라 이탈률이 달리 적용된다. 예를 들어 소매예금 및 무담보 도매자금 중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거나 인터넷예금과 같이 인출이 용이한 예금 등을 불안정예금으로 정의하고 이들 예금에 대해서는 10%의 이탈률을 적용하고 있다. 본고의 고이탈률 현금유출액은 바젤 III의 '유동성 기준서' 상 10% 이상 이탈률이 적용되는 현금유출액의 총액을 의미한다.

기말 0.67%로, 전분기(0.73%) 대비 소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시중은행(0.3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2024년 3/4분기말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sup>13)</sup> (1.85%)과 가계 신용대출(1.02%)이 주택담보대출(0.19%)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 확대 과정에서 저신용자 가계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sup>14)</sup>의 비중을 늘린 데 주로 기인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sup>15)</sup>에 따라 2021년 4/4분기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을 크게 늘려왔으나, 최근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2024년 3/4분기 현재 중·저신용자 가계 신용대출 비중(신규취급액 기준)이 전년동기(42.7%) 대비 하락한 37.5%를 기록하였다(참고 3-6).

참고 3-6.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자산 연체율 및 신용등급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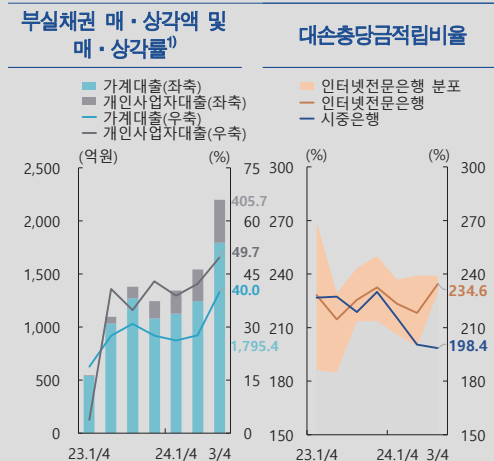
대출자산 연체율<sup>1)</sup> 중·저신용자<sup>2)</sup> 가계 신용대출<sup>3)</sup> 비중



주: 1)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2) 은행 자체 신용등급 기준(4등급 이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매분기 공시하는 중·저신용자(KCB 신용평점 하위 50%) 대출 비중 기준과는 상이함  
 3) 신규취급액 기준, 한도대출 제외, 토스뱅크는 2021년 4/4분기부터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시중은행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양호한 손실흡수력 등을 감안하면 자산건전성 하락으로 인한 부실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채권 매·상각률은 2024년 3/4분기 각각 40.0%, 49.7%로 2023년 3/4분기(30.9%, 34.8%)에 비해 상승하였다.<sup>16)</sup> 또한 대출 부실에 대한 대응여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 2024년 3/4분기 234.6%로 시중은행(198.4%)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참고 3-7).

참고 3-7.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현황 및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주: 1) 전분기말 연체(1개월 이상)금액 대비 당분기 매·상각액으로 자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수익성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으로 이자이익과 대손비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 13)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업(2.65%), 도소매업(1.92%), 운수창고업(1.67%)에서 시중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각각 0.80%, 0.70%, 1.08%)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대출방식과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비대면 보증 간 연계성이 높아 보증기관의 보증부대출 형태로 개인사업자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보증기관 출연금을 늘리고 있다. 신규취급액 기준 개인사업자의 보증부대출 비중은 2024년 3/4분기중 42.3%에 이른다.
- 15)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취급 비중 확대에 따라 2024년 1/4분기부터 모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포함) 비중(평균 기준)이 목표치(30%)를 상회하고 있다. 2024년 3/4분기 3사 (산술평균은 33.5%)이다.
- 16) 2024년 3/4분기 부실채권 매·상각액의 대출취급시 신용등급별 비중이 고신용 및 중·저신용 각각 33.7%, 66.3%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차원에서 연체율의 추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고신용등급 차주의 부실채권 정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대손비용 증가<sup>17)</sup>를 감안하더라도 이자이익<sup>18)</sup>이 확대되면서 당기순이익의 규모는 2024년 1~9월중 5,124.9억원으로 전년동기(2,876.0억원) 대비 약 1.8배 증가하였다.<sup>19)</sup> 그러나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은 대손비용 증가, 예대금리차 축소, 모바일뱅킹 시장의 경쟁 심화 등으로 하방압력이 상존해 있다. 대손비용을 감안한 실질 순이자마진(NIM, 외화 포함)은 2024년 3/4분기 1.21%로 시중은행(1.39%)보다 낮은 수준인 데다, 순이자스프레드(잔액 기준)도 2024년 3/4분기 2.17%포인트로 전분기(2.29%포인트) 대비 0.12%포인트 축소되면서 시중은행(1.55%포인트 → 1.47%포인트, -0.08%포인트)에 비해 더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이에 더해 시중은행의 모바일뱅킹 서비스 강화 등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바일뱅킹 가입자 수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데다 대출금액 점유율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참고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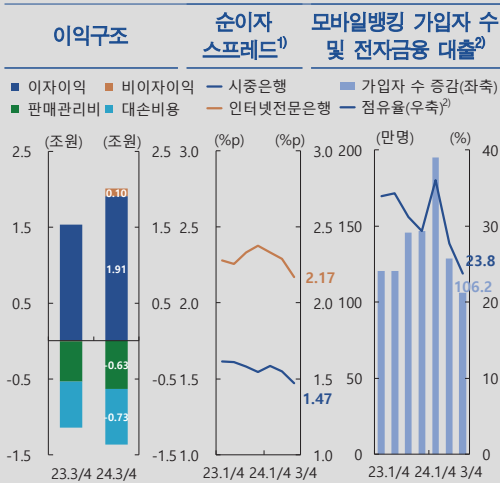
### 시사점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동성위험, 대출자산 건전성 및 수익성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문별 취약요인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유동성위험과 관련하여 자산-부채 간 만기 불일치가 현 수준에서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산의 만기가 현재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저원가성예금의 지속성 개선, 정기예금 등 저축성예금 유치 노력 강화 등을 통해 부채의 만기 장기화 및 수신 안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대출자산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와 함께 보증부대출이 여타 대출의 자산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리스크 통제를 통해 대손비용을 관리함으로써 향후 수익성 저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배구조 관련 평판리스크, 비대면 영업 기반에서 초래될 수 있는 운영리스크 등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 3-8.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 및 모바일뱅킹 현황



주: 1) 금분기 잔액 기준, 평균 이자수익률에서 평균 이자비용률을 차감하여 시산(외화 자산 및 부채 포함)  
 2) 일반은행 전체 전자금융 대출금액(신규취급 기준) 중 인터넷전문은행 비중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7) 인터넷전문은행의 총비용 중 대손비용(기타총당금 비용 포함) 비중은 2024년 3/4분기(3개월 누적 기준) 19.7%로, 2024년 1/4분기(18.2%)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18)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2024년 3/4분기(9개월 누적 기준) 94.9%로 시중은행(88.7%)에 비해 6.2%포인트 높다.  
 19) 2024년 1~9월중 인터넷전문은행(0.60%)과 시중은행(0.68%) 간 총자산이익률 격차가 전년동기(0.42%, 0.69%)에 비해 축소되었다.